

전기제품 제조업체를 위한 PL시대의 십계명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교육홍보부 이사 나경수
02) 579-3291 kshna@esak.or.kr

계율(戒律)은 불교용어로 3학 6탁(三學六度)의 하나인데 수련(修練)과 성선(性善)의 뜻이다. 소승은 금제지악(禁制止惡)을 주로 하고 출가는 250계, 재가는 5계, 대승은 행선(行善)이다. 그래서 3중정계(三衆淨戒) 및 원돈계(圓頓戒)와 율을 합하여 계율이라 일컫는다.

기독교 용어로서는 종파(宗派)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 교파에서 규정한 규칙과 처벌을 말한다. 구교에서는 교회규율 가운데에도 특히 수도원의 규칙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율종(戒律宗)은 불교 교종(敎宗)의 한 종파이다. 율장(律藏)을 주로 하여 일상 생활에 유의(留意)하는 불교의 한 종파이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종남산(終南山)에 살고 있었던 도선(道宣)이 펴서 보급한 남산율종(南山律宗)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계율종이 자장(慈藏)에 의해 창시되었고 그 후 통도사(通度寺)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계율종을 약(略)하여 율종이라고도

하며, 조선조 때는 남산종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자장이 도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십계(十界)는 불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세계관이다. 즉 지옥계·아귀계(餓鬼界)·축생계(畜生界)·수라계(修羅界)·인간계·천상계(天上界)·성문계(聖聞界)·연각계(緣覺界)·보살계·불계(佛界)의 10가지 세계를 일컫는다.

이러한 십계와 관련된 십계도(十界圖)는 육도화(六道畵)의 일종이다. 지옥·아귀·출생·아수라(阿修羅)·인간·하늘·성문·연각·보살(菩薩)·불(佛)의 10 세계를 그려 정토교(淨土敎)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정토교는 정토문(淨土門)의 교법(敎法)인데, 아미타불(阿彌陀佛)의 극락으로 정토에 왕생하여 부처되기를 가르치는 교문(敎門)이다. 여기서 정토(Buddhist Elysium)는 번뇌의 속박을 벗어난 아주 깨끗한 곳을 말한다.

또한 십계(十戒)는 불교에 있어 사미(沙彌)와 사미니(沙彌尼)가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율(戒

律)을 말한다. 생물을 죽이지 말 것, 남의 것을 훔치지 말 것, 음탕한 생활을 하지 말 것, 망령된 말을 하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고기를 먹지 말 것, 훼방하지 말 것, 허물을 말하지 말 것, 인색하지 말 것, 속이지 말 것 등이다.

기독교인들이 수덕(修德)과 인격완성의 생활기준으로 삼는 대신(對神) 및 대인(對人)적 규율이 이른바 십계명(十誡命)이다. 이것은 신명기(4 : 13~14)에 의하여 불려진 이름이다. 보통 구약성경의 출애굽기(20:3~17)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과 신약성경 요한복음(13:34-15:12)과 마태복음(22:37~40)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아울러 일컫는다.

전자는 모세의 율법 또는 옛법이라고도 하는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교의(教義)와 예배 등 대신(對神)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민법과 형법 등 대인(對人)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후자는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의 계명 또는 새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인간상호 간에 사랑할 것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이다. 전자와 후자 중 신과 사람에 대한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장 큰 것이라 하겠다.

신교에서는 전후 계명을 모두 합하여 10계명으로 삼으며, 카톨릭에서는 여기다가 다시 교회의 6가지 교규(教規)를 첨가하여 일컫는다.

즉 다른 신(神)을 섬기지 말 것,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 것,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 것, 안식일을 지키지 말 것, 아버자를 공경할 것,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이웃을 사랑할 것, 탐내지 말 것 등을 말한다.

이 십계명은 기독교생활에 긴장과 훈련을 주는 대헌장(Magna Charta)으로서 여호와에 대한 경건한 사람에게 대한 성실과 사랑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 전기제품 제조업체를 위한 제조물책임(PL) 시대에 필히 지켜야 할 십계명을 적어본다.

1.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PL법 시행에 대하여 반대하고 막연한 불만을 토로해서는 아니된다. 부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며,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도 있다.
2. 전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저 말단 평직원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총의(consensus)가 있어야 하고 합치된 마인드(mind)가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3. 품질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안전하고 결함없는 양질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사내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뒤편이라도 제품안전(PS)이 최우선이며 제품의 내구성과 환경친화성도 역시 주요한 항목임을 명심하고 소비자의 사용상 편의성이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모든 기록과 사실을 문서화하여 그 관리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특히 어느 제품이 언제 제조되어 언제 출고되었는지를 장부를 만들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제품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은 후에 분쟁발생시 제조업체 등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하고 주요한 자료임으로 기록과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5. 전천후(all-weather) 준비태세(preparedness)다. 춘하추동, 눈이오나 비가오나 할 것 없이 24시간 긴장상태에서 일년 365일을 준비하면서 경계해야 한다. 사고는 언제 어느때 밤낮 가리지 않고 발생된다. 화불단행(禍不單行), 재앙은 매양 겹쳐 오게 마련이다.
6. 협력업체와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제휴를 통해서 유대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부품제조업체도 보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 이를 양지시키고 교육시켜 같이 PL준비에 동참시켜야 한다. 특히 사고 발생시에 어떻게 책임분담을 할 것인지 한계를 명확히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7. 적절한 PL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무리 사전에 준비와 대비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의 사고는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온다. 장래의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필히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8. 가능한한 초동진입하여야 한다. 무슨 일이건 초두(初頭)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장에 마무리를 해야한다. 오래 끌면 냄새나고 기업이미지가 추락되며, 오래 끌어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대충대충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전투에서도 초전박살이 으뜸이다.
9.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대응준비를 충분히 했지만 그래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흥원이나 조합내의 법원과 PL분쟁조정기구(ADR)가 있으면 지체없이 이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기업의 위상정립이다. 항상 건전한 시민으로 성실한 자세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투철한 기업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평소에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쌓아 두면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된다. 늘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정신으로 소비자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강화된 컨슈머리즘(consumerism)에 앞장서야 한다.

